

SK텔레콤, 2017년 2분기 실적 발표

-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 효과로 매출 4조 3,456억원, 영업이익 4,233억원
- SK브로드밴드, 분기 실적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 SK플래닛도 영업손실 개선
- AI플랫폼 기반으로 MNO · 미디어 · IoT · 커머스 등 주력사업 연계

[2017.7.27] ※ 모든 경영실적 수치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7년 2분기 매출 4조 3,456억원, 영업이익 4,23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SK브로드밴드 · SK플래닛 등 주요 자회사의 성장 · 수익성 개선 및 신규 사업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3.9% 증가했다. 또, 당기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상승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2% 증가한 6,205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취득한 2.6GHz 주파수 감가상각비 증가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4,623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 매출은 선택약정할인 가입 고객 증가 등 매출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와 IoT 솔루션 등 신규 사업 매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3조 1,096억원을 기록했다.

■ SK브로드밴드 · SK플래닛 등 연결 자회사 실적·수익성 개선

SK텔레콤의 주요 연결 자회사는 나란히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루었다.

SK브로드밴드의 매출은 UHD 셋톱박스 가입자 150만명 돌파 및 유료 콘텐츠 소비 고객 증가로 전년 동기 1.9% 상승한 7,301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인 316억원을 기록했다.

SK플래닛은 11번가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2,740억원의 매

출을 달성했다. 또, 고객 맞춤형 쿠폰 제공 등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관리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폭을 351억원 줄였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연결 당기순이익 증가에 기여했다.

■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MNO · 미디어 · IoT · 커머스 · T맵 연계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미디어와 IoT를 양대 축으로 삼아 New ICT 회사로 진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SK 텔레콤은 자사의 New ICT 핵심 인프라인 AI 플랫폼과 이동통신 · 미디어 · IoT · 커머스 · T맵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차별화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 · 서비스를 선보여 나갈 예정이다.

또, New ICT의 근간인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를 위해 5G 경쟁력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국내 최초로 3.5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5G 통신 시연에 성공한 바 있으며, 올 상반기 'GTB 어워드' · 'TechXLR8' 어워드' · '아시아 모바일 어워드' 등 권위 있는 통신네트워크 시상식에서 5G로만 4개 분야에서 수상하면서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SK텔레콤은 이러한 New ICT 역량을 기반으로 '개방과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최근 발표한 SM엔터테인먼트와 협력을 통해 ICT 기술과 콘텐츠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 유영상 전략기획부문장은 "이동통신 시장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며 "이동통신 사업은 물론 미디어와 IoT를 기반으로 New ICT 회사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